



# “100% 사전제작... 감정 잡기 어려웠어요”

KBS '태양의 후예' 외과의 역 송혜교

송중기·송혜교 주연에 무려 130억원을 들인 대작. KBS 2TV에서 24일 첫 방송된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공사차림 특별기획'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면면을 갖췄다.

여기에 한·중 동시 방송을 위해 100% 사전제작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쪽대본'과 밤샘 촬영이 일상인 배우와 제작진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 여주인공 강모연 역을 맡은 송혜교는 "급하게 찍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나 감독님, 이 스태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니 감정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1부를 찍다가 3부를 찍다가 하는 식으로 시간을 건너 뛰어 촬영을 하다보니 감정을 잡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송혜교는 "사전제작 환경에서는 배우가 캐릭터와 그의 감정을 더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에서 송혜교는 흉부외과 전문의 역을 맡았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학 관련 장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법하다.

"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게 연기라는 생각이 들던 차였는데 의사 역할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의학 용어를 대사로 소화해야 할 때는 제 뜻대로 말이 안나기까지 NG도 많이 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현장에 의사 선생님이 늘 대기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송혜교는 "지난해 6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경쟁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그냥 달려왔고 이미 촬영을 마쳐 제 손을 떠난 상황이라서 경쟁이라는 실감이 안난다"면서도 "저희 드라마는 코미디도 있고 멜로도 있고 휴먼까지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라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태양의 후예'의 관전 포인트를 자랑했다.

/연합뉴스

## 빅뱅, 한국대중음악상서 올해의 노래 등 3관왕

지난해 '배배'(BAE BAE)와 '루저'(LOSER) 등으로 큰 인기를 얻은 그룹 빅뱅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노래' 상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9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빅뱅은 '배배'로 '올해의 노래' 상을, '루저'로 '최우수 팝 노래' 상을 받았으며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상에서 그룹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래퍼 이센스는 지난해 8월 발매한 앨범 '애니도트'(Anecdote)로 '올해의 음반' 상과 '최우수 랩·힙합 음반' 상을 받았다. 이 앨범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센스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에서 선보인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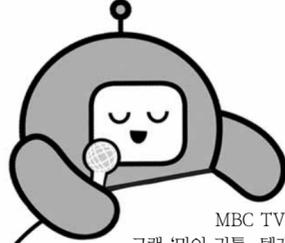
또 다른 래퍼 답플로우도 '올해의 음악인' 상과 '최우수 랩·힙합 노래'(수상곡 '죽음') 상을 거머쥐었고, 밴드 혁오는 '올해의 신인' 상과 '최우수 모던록 노래'(수상곡 '와리거리') 상을 가져가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시상식에서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을 작곡한 김희갑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으로는 빅뱅 외에 박진영과 아이유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 안무가 배윤정 녹화중 욕설 논란 “생각 없는 언행 죄송하다”

‘마리텔’서 저속 표현·성희롱 발언 등 온라인 파문 제작진, 부적절 언행은 편집 “앞으로 주의하겠다”



MBC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의 인터넷 생방송 녹화에서 유명 안무가가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쏟아내 온라인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안무가 배윤정(사진)은 전날 걸그룹 애프터스쿨 가희와 함께 '마리텔'의 댄스 트레이닝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문제의 언행을 일삼았다.

배윤정은 엠넷 '프로듀스 101' 출연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누리꾼 요청이 이어지자 "진짜 (번호를) 모른다"면서 어머니를 창녀에 빗대어 진실을 맹세한다는 뜻의 욕설과 이를 뜻하는 동작을 보여줬다. 배석한 가희는 이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배윤정은 유명 걸그룹의 히트 안무를 만들었다. 그는 가희와 함께 걸그룹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에서 댄스 트레이너 겸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배윤정은 또 '모르모트(실현주) PD'라 불리는 '마리텔'의 관례 PD에게 춤 동작을 가르치던 중 우연히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XX 안 만진다"고 말했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는 이 밖에도 안무를 설명하면서 가희와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마리텔'은 1인 인터넷 방송 포맷을 TV에 접목, 다음TV팟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후 편집본을 매주 토요일 밤 TV로 내보낸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생방송인 점을 고려해도 배윤정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마리텔'은 인터넷 생방송도 본방송 이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프로그램

이다.

배윤정이 방송 직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중에 너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평소 욕설이나 악성 댓글 작성자를 즉각 걸러내는 '마리텔' 제작진이 배윤정을 발탈리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당시 제작진은 대만기를 소품으로 뒤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음에도 쓰위 사태가 악화일로로 걷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리텔' 제작진은 이에 29일 오후 늦게 "지난 녹화에서 있었던 출연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편집돼 본 방송에서 방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계 끝은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인이자 들쭉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뉴스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재)	00 3.1절 특선 (이상실, 불꽃의 시간) 55 안성 우리말(재)	00 1대100(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00 닥터 365 0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35 글로벌 문화유산
12	10 뉴스특급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20 옆집의 CEO들 스페셜	55 TV블로그 품지락
2	30 직인직설	00 공사차림 특선 대기화 (내 스타 휴먼)(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55 텔레몬스터	00 열린 TV시청자세상
3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튜브생물체(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캐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우치원 30 아육장 PD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푸리가 탐구생활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번신자동차 토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필동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일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결혼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50 한번 더 해피엔딩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토론 10 55 슬터	00 공사차림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비행기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한밤의 TV연예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10 공사차림 특별 기획 (이탈 라이브 인 런던)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이종임의 입맛 당기는 음식 -연어찜만두와 연어군만두)
05:30 건강한 아침	11:00 세계 테마 기행 (살이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40 한국기행
06:10 세계의 눈 (재정의 재구성 -케이볼카 총을 사고)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2:40 지식채널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초대석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40 사이먼 시즌3 -왔다! 사춘기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4:00 책과 팡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새 학기 학부모 모임 행동강령)	
14:30 미 앤 마이 로봇	19:50 글로벌 여행 찾아 삼만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대기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안데스의 영혼을 찾아서, 칠레 3부 안데스의 축복)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21:30 한국기행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겨울왕국 울릉도 3부 -즐거운 나의 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백성의 물고기)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2:45 극한직업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장수의 비밀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니~4	24:10 한국영화특선
19:0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탄생! 레전드히어로)	(두레소리)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일 (음 1월 24일 癸未)
	48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자. 60년생 새로운 것이 생기는 기쁨이 있느니라. 72년생 합당 하느니라 부당 하느니라 잘 살펴 볼 일이다. 84년생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고민을 하게 되리다. 행운의 숫자 : 34, 17	
	49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할 것이다. 61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 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73년생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통감하리라. 85년생 아예 여자를 두지 않는 편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55, 21	
	50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새로운 것보다는 옛것이 더 값있다. 74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86년생 초기 정황이 전 체적인 판국을 좌우하리라. 행운의 숫자 : 07, 36	
	51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기에 용처가 나타나리라. 63년생 오랜 세월 동안 불변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75년생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님을 알 것이니라. 87년생 인식을 잘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75	
	40년생 밤심하다가는 결정적인 흠결을 남길 수도 있다. 52년생 의행보다는 실속이 중하다. 64년생 쉽게 정답한다면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76년생 가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88년생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47	
	41년생 방치한다면 더 어렵게 만든다. 53년생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보태진다. 65년생 잊지려 붙은 다시 주워 담지 못 한다. 77년생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89년생 전 문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4, 25	
	42년생 예견한 대로 대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54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야 말 것이니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66년생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에 진귀함이 있도다. 78년생 다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리라. 행운의 숫자 : 41, 02	
	43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난다. 55년생 구상을 버리고 침심함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순환하면 서 상생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79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68, 27	
	44년생 기민한 감각과 인식이 필요하다. 56년생 가까운 이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다. 68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니 철저해 대비해야 한다. 80년생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3, 49	
	45년생 그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맞다. 57년생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69년생 미루어져 왔던 일들이 재개되리라. 81년생 상호 공정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83, 44	
	46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리라. 58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생산적이다. 70년생 잔과 부리다 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도다. 82년생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행운의 숫자 : 15, 80	
	47년생 기본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59년생 친분과 격식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니라. 71년생 변화를 꾀한다면 분명히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83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4,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